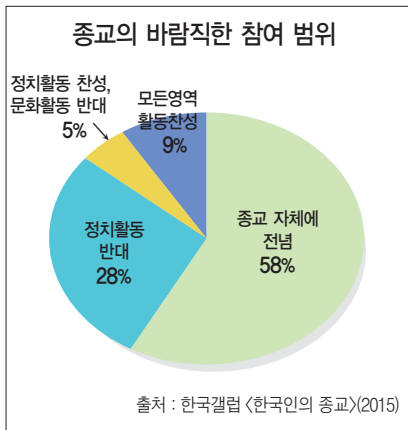


선거 개입 나선 개신교 사회 갈등 촉발시키나

4.13 총선, 종교 개입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에는 지지를, 부정하는 '반(反) 개신교' 정서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개신교계 진보 진영으로 잘 알려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는 3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투표 정! 기독교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했다. NCC는 정권 심판론, 역사 왜곡과 과거사 미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중심이 된 한국기독교공정정책협의회는 △동성애를 포함한 국가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슬람 대학 △한국교과서 내 기독교 기술 등을 주요 정책 변경 목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정책질의서를 1400명 예비 후보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운동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실제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29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호응을 겪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진보계열 정당의 녹색당들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이를 성토했다. 개신교계는 비관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이를 성토했다. 개신교계는 비관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이를 성토했다.

'반 개신교' 후보에 대한 낙선까지 공언하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엄연한 정교분리 위반이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거법상 위반뿐만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상 낙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 하더라도 종교 단체가 선거 및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제20조 2항)'은 종교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를 막기 위함이지만, 이는 종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종교 단체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도 선거에 개입하는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 행위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범용 스님은 "자신들의 교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입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의 위배, 배타주의에 의한 반복 조정, 국민화합 저해 등 현저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즉시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도 개신교 등 종교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대해 국민들이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뿐"이라면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종교·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박이름 기자



전화 한 통으로 성역화불사 동참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ARS모금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ARS모금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ARS모금이 시작됐다.

찬불가지도사 승인... 불음포교 활성화 기대

강형진 니르바나 단장, 올해 초 문광부 등록 마쳐

동국대 평생교육원 강좌 개강도

불교계에 찬불가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과정이 새롭게 생겨 앞으로 불음 포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1급과 2급 과정에 대한 최종 등록과정을 마치고 지도사 양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3월 7일 밝혔다.

가 관련 민간자격증은 수십여 개에 달했으나 불교음악 자격증 과정은 이번이 등록된 〈찬불가지도사〉와 〈음악축신사〉를 비롯해 단 3개에 불과하다. 강 단장은 "2년전부터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찬불가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민간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해 문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등록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자격증 등록을 계기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과 고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찬불가

무산·원각·무관 스님 대중사 법계 대상자로

조계종 법계위서 만장일치 확정

속초 신홍사 조실 무산 스님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무관 스님이 대중사 법계 대상자로 확정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35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무산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교구본사 신홍사,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원각 스님은 해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극락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15년 3월 제9대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1088호 INDEX

시방세계 5
한국관광공사 3월 추천 '사라진 옛 절터 찾아서'



리더에게 14·15
송석규 삼성품질재단 이사장



“깨달음 논쟁”

깨달음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쟁에 관련한 기사가 2016년 2월10일자 현대불교신문 1면에 실렸다

깨달음은? 논어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논쟁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지혜광명을 설한 화엄경 제10품 보살문명품에서 모든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어떤 것이 부처의 경계이며, 법이며, 지혜이며, 증득함인지?> 물어서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께서 자비롭게 경(經)에 법등(法燈)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의 법등을 요약하면 <만경(萬境)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 아니며 법계와 증생의 세계가 차별함이 없는 지혜의 경계가 허공과 같이 무의(無依)하여 삼체가 평등하며, 식(識)으로써 능히 아는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님을 모든 증생들에게 개시 함이로다> 하셨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의 분별짓대인 상식과 지식을 자제해탈한 묘혜(妙慧)를 지닌 부사의 한 수행자의 논쟁은 온갖 유위적 속박됨을 벗은 자유스런 구도자의 보현행이 될 것이며, 증생들의 업견(業見)을 여는 하화증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다겁생을 홀로이 사유(思惟)하고 홀로이 구도자의 길을 걸다가 석가세존의 평온함을 엿본 <석가를 품은 53見>의 진귀 화두집~53見중에 제4툐를 펼쳐 보이다.....

제 4툐 차 한잔

찾상앞에 나홀로 앉았다.

1700공안을 다관에 담고 팔만대장경의 따뜻한 감로수로 우려내어

이 몽안 속 삼천대천세계 곳곳마다 평온한 차의 법열이 스며드니

아~~~

증생심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찻사발에 따라

불가사의한 화엄세계가 부럽지 않구나.....

<석가를 품은 53見>저자 화엄경 강령/강주 獨覺~眞歸 두손모음